



2013 북엑스포 아메리카 성료 인협, 한국인쇄문화관조성해 수출 지원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새로운 거래처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있을 경우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 인쇄사들이 외국의 출판사에게 자사를 홍보하고, 인쇄물을 수주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가 큰 것은 그들을 직접 만나 자사를 홍보하는 것이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매년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제도서전에 인쇄문화홍보관을 마련하고, 국내 인쇄사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인협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인쇄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서 열린 북엑스포아메리카에 한국인쇄문화관을 조성하고 한국의 인쇄물 수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글 · 사진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2013뉴욕국제도서전(2013 BEA)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3일 동안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렸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북미 최대의 출판관련전시회로 북엑스포아메리카는 국제전시회답게 대한민국을 비롯해 호주,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이집트,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등 78개국에서 1316명의 VIP가 참석했다.

또한 전시회에는 출판사 700개 사 이상, 전문 소매업 800개 사

이상, 디지털 서비스·솔루션 제공 업체 500개 사 이상, 라이선스 권한 에이전트 200개 사 이상, 문학 에이전트 500개 사 이상 등 1250여 개 사 이상이 참가했으며, 사서 1700명, 교육자 500명, 협회 관계자 300명, 출판·편집자 1400명, 독서 클럽 회원 100명, 미디어 인사 200명, 출판 컨설턴트 400명, 저자 400명, 책을 사랑하는 소비자 400명 등 총 6만여 명의 출판관계자가 방문했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다른 국제전시회보다 짧은 2박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데, 이 기간 동안 6만여 명

이 넘는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특히 전시회 시작 전 5백여명이 넘는 입장객들이 30분 이상 일찍 와 대기줄이 100여미터가 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북엑스포아메리카의 참관업체는 크게 일반출판사와 독립출판사, 전문도매·유통업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출판사 부문에는 아세트북그룹, 하퍼콜린스, 펭귄그룹, 퍼세스북그룹, 랜덤하우스, 사이먼앤슈스터, 소스북 등이, 독립출판사 부문에는 앤드류맥밀 출판사, 캔들워 프레스, 크로니클 북스, 드아고스티니, 글로브·아틀란틱 출판사, 리졸리국제 출판사, 워크맨 출판사 등이, 전문도매·유통업체 부문에는 베이커엔테일러, 독립출판사그룹, 인그램컨텐츠그룹, 국제도서네트워크, 서부출판사그룹 등이 참가했다. 또한 전자책코너에는 삼성전자도 참여해 휴대폰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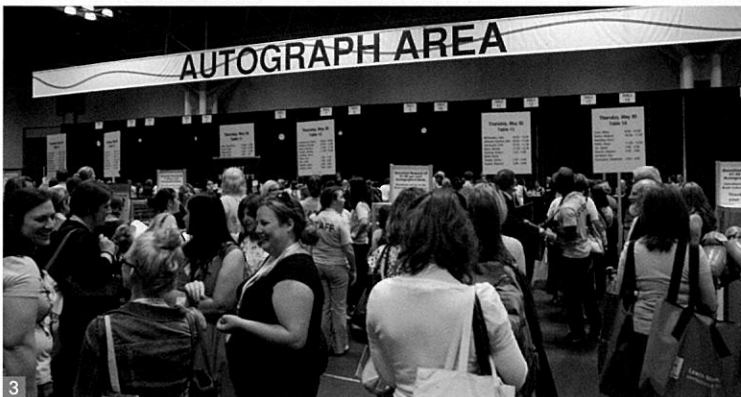
한편 2014년 북엑스포아메리카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인협, 한국인쇄문화관 설치해 직지 홍보 및 수출지원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36㎡ 규모로 'Printing Korea'라는 이름의 한국인쇄문화관을 설치하고 직지심체요절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을 전시함으로써 한국 고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한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을 배포하고, 한국 인쇄문화 홍보용 리플릿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문화 홍보 및 인쇄 수출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국내 인쇄사가 현재 및 잠재 구매자와 직접 만나 상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인쇄물 수출 증대에도 큰 역할을 했다. 수출 전용 홈페이지를 소개해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열리는 대한인쇄문화협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쇄물시장개척단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뉴욕도서전에 참가했던 인쇄물 수출담당자들은 “국제도서전에 참여해 많은 외국 고객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쇄물 수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출판 및 인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출판계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1. 한국인쇄문화관에 참여한 인쇄사 대표들 2. 인협은 한국인쇄문화관 설치해 직지 및 고인쇄문화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3. 2013뉴욕국제도서전에서 저자의 싸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출판관계자들 4. 한국인쇄문화관은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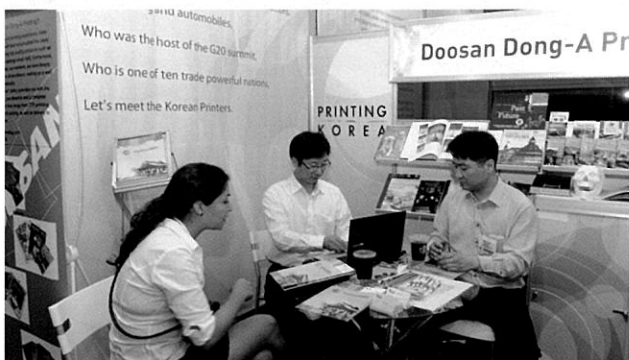


4개사 직접 참가 18개사 위탁 전시

한국인쇄문화관은 두산동아(주), 아시아프린팅(주), (주)타라 TPS, 팩컴코리아(주) 등 4개사가 직접 참가했으며, 청아문화사 등 18개 업체는 위탁 전시했다.

Printing Korea의 타이틀로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로 구성된 한국인쇄관은 각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자유로운 상담을 보장했으며, 우수 인쇄물 및 위탁 전시 업체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230여 건의 상담 건수와 36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두산동아(주)



1945년 설립된 두산동아는 8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오로지 교육출판과 인쇄 한길을 걸어온 국내 최고의 교육출판 및 인쇄사 중 하나다. 인쇄부문은 1955년 인쇄사를 신축한 이후 반세기 동안 ‘고객만족’이라는 최우선의 목표 아래 현재까지 열

정을 다해 매진하고 있다. 월간지, 단행본, 전집, 참고서, 사전, 교과서, 라벨 등 다양한 인쇄물을 최상의 품질로 공급하고 있다. OHSAS/KOSHA 18001 인증, G7 마스터(윤전, 매엽 공정) 인증, Soy seal mark 사용 인증, ISO 14001 인증, FSC CoC 인증 등을 획득한 바 있다.

1990년 1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000년 1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제품은 캘린더, 고급양장책자, 카탈로그, 교과서 등이며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제품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며,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이탈리아 등으로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매년 해외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 홍보 및 신규고객 발굴에 힘쓰고 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44(목내동)

홈페이지 | <http://printing.doosandong.com>

전화 | 031-489-7800

팩컴코리아(주)

1999년 설립된 팩컴코리아(주)(대표이사 김경수)는 최첨단 디지털 공정과 최신 인쇄장비는 물론 전사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제책 및 후가공, 포장과 배송분야에서도 완벽한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팩컴코리아는 ▲고품격 인쇄품질 솔루션 ▲제책 품질 솔루션 ▲온라인 전산시스템 솔루션 ▲POD 시스템 솔루션 등 ‘인쇄통합 솔루션



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쇄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위해 G7 마스터(국제인쇄표준) 인증, PSO(ISO 12647) 인증, FSC CoC 인증, ISO 9001 / ISO 14001 인증 등을 획득했다.

수출실적은 2003년 1천만 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2005년 2천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현재 연간 2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제품은 단행본, 잡지, 캘린더, 동화책, 패키지 등이다. 매년 해외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 홍보 및 신규고객 발굴에 힘쓰고 있다. 팩컴은 한국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등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글로벌 고객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인쇄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농심로 59번길 7-12(당정동)

홈페이지 | <http://www.gopacom.com>

전화 | 031-718-3666

아시아프린팅(주)



1993년 설립된 아시아프린팅(주)(대표이사 이국홍)은 어떤 분야의 인쇄물이라도 고품질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 인쇄사다.

품질관리를 위해 전 직원들은 인쇄물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생산 과정을 감독해 인쇄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수출제품은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잡지, 캘린더, 엽서 & 메모 카드, 쇼핑백, 패키지 등이다. 매년 뉴욕도서전, 동경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자사 홍보 및 신규고객 발굴에 힘쓰고 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 3단지 720호

홈페이지 | www.koreanprinting.com

전화 | 02-725-0790

(주)타라티피에스



1989년 설립된 (주)타라티피에스(대표이사 이재수)는 CTP, 매엽, 운전, 무선, 중철 등 대량생산을 위한 종합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생산관리로 고품질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의 모든 종이를 가장 짧은 시간에 배송하는 '타라유통', 서울 전역에 지점망을 구축하고 디자인, 각종 문서출력 및 인쇄, 제책 그리고 해외특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라그래픽스', 포토북, 포토카드, 초대장, 포토명함, 스티커, 대형실사 등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주문할 수 있는 '타라POD' 등을 설립해 종합인쇄그룹의 면모를 갖췄다. 또한 1995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브랜드가 있는 인쇄사를 지향했다. ISO 14001 / ISO 9001 인증, G7 PC 인증, G7 마스터(교정, 매엽, 운전 공정) 인증, FSC CoC 인증 등을 획득했다.

2004년에 해외영업팀을 신설하고 2006년 100만 달러, 2009년 300만 달러, 2010년 5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그룹 매출 2천억원을 돌파했다. 주요 수출제품은 단행본, 잡지, 캘린더, 카탈로그, 교육도서 등이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인쇄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 홍보 및 신규고객 발굴에 힘쓰고 있다.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92-1

홈페이지 | <http://www.taratps.com>

전화 | 031-939-2025